

담화적 교육과 청소년교육의 방향

김 원 동*

- I. 머리말
- II. 청소년교육의 방법론적 기초
- III. 담화적 교육의 전제
- IV. 한국사회의 현실과 청소년교육을 위한 제도적 개혁 방향
- V. 맺음말

I. 머리말

청소년 교육문제에 대한 접근방식과 초점은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청소년 문제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어떤 특정한 접근방법에 입각한 연구와 그 처방이 결코 청소년 교육문제의 온전한 해답이 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이 분야에 있어서 각자의 연구 관심에 따라 이루어진 각연구자의 개별 연구결과들이 청소년의 교육 문제를 폭넓게 이해하고자 할 때 그 나름대로 중

요한 하나의 지적 소재를 제공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청소년문제에 관한 기존의 다양한 연구성과들을 재구성하여 건전한 청소년교육의 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같은 연구관심으로부터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청소년교육에 있어 무엇이 방법론적 기초가 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다. 그 답변을 처음 논의하게 될 ‘담화적 교육’ 부분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필자는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 노력과 그 빈도, 대화의 내용, 청소년의 정신장애와 비행 등과 관련하여 청소년 교육문제에 있어 담화적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어서 필자는 담화적 교육의 전제로서 부모쪽에서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자세와 노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입장에서 추구해 나가야 할 몇 가지 제도적 개혁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II. 청소년교육의 방법론적 기초 : 담화적 교육

청소년들이 떠안고 있는 문제를 올바로 인식하고 그 교육적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살펴 보아야 할 항목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일 것이다. 이 때 이 관계의 바탕은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의 정도와 그 내용 및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와 청소년자녀간의 원활한 대화 또는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건전한 인성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의 하나라는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연구분야에서는 특히 1980년대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다시말해서 청소년문제와 관련하여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그에 대한 연구가 촉진되어온 데에는 핵가족화 현상과 부모의 가외취업(家外就業) 증대 경향으로 가족원간의 유대의식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고 그것이 또한 청소년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 인식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유영주, 김진숙, 1992 ; 이상주, 1982). 그러면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와 어느 정도나 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 실제로 대화하고 있는가.

한국청소년연구원은 「한국청소년의 실태와 문제」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에서 ‘원만한 부모-자녀 관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녀와의 대화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부모가 자녀와 얼마나 대화하려고 노력하는가에 관한 경험적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이 보고서에 의하면, 아버지가 자신들과 대화하고자 노력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49.8%인데 비해 어머니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62.9%가 자신

들에게 그런 노력을 보인다고 응답함으로써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대해 이 점에 있어 보다 긍정적이었다. 또한 이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응답결과와 함께 청소년들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보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응답 경향을 보여줌으로써 부모쪽에서의 ‘대화’의 노력이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는 어머니의 경우 자녀와의 대화 노력이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별다른 관련이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전업주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이 적은 취업여성들이 이 점의 보완을 위해 자녀와의 대화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사결과를, 결국 오늘의 우리 가정에서 어머니쪽보다는 자녀에 대한 아버지쪽에서의 관심 제고가 더욱 긴요함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개관한 한 연구에서는 이 점을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하여 강조하고 있다(유영주, 김진숙, 1992). 즉 가정내에서 아버지가 수행해야 할 교육적 역할의 약화 또는 소극화는 심지어 청소년기 자녀의 비행과도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같은 연구결과들에서 볼 수 있듯이, 현단계의 우리 가정에서는 원만한 부모-자녀 관계의 조성과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해서는 부모쪽, 특히 아버지쪽에서의 자녀들과의 대화 노력이 절실한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의 부모들은 자녀들과 얼마나 대화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나라 전국의 만 13세~18세 남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91 MBC 청소년백서」(문화방송, 1991)에 의하면, 일 주일 동안 2시간 이상 아버지와 대화하는 청소년은 37.3%인데 비해 어머니와 대화하는 청소년은 65.6%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역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실제로 보다

많이 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이 연구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아버지, 어머니와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았거나 30분 정도 대화시간을 가졌다는 청소년이 각각 38.7%, 17.6%로 나타나 가정내에서 부모, 그중에서도 아버지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결코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 자녀와의 대화 노력이나 대화 빈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간에 나타나는 차이 문제와는 별도로,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와 갖는 대화의 정도 그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낮다는 것도 청소년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청소년대책본부에서 실시한 세계청소년의식조사(이종원, 1993) 결과를 보면 부모 자녀간의 대화정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1개국중 8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개발조사연구소의 한국인의 가정생활과 관련한 국제비교 조사연구(1983)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는 일 중 대화 항목의 경우 영국(82.1%), 미국(80.2%), 프랑스(79.9%), 일본(76.0%), 서독(70.5%)인데 비해 한국은 58.6%로 나타나 이들 비교국가들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부모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우리보다 높은 이른바 선진국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난 이같은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부모들과 자녀와의 대화 부족의 원인을 부모의 경제 활동 참가율의 증대에 따른 시간 부족의 문제로 돌릴 수 없음을 시사하며 따라서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와의 대화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함을 환기시켜주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개발조사연구소의 조사가 만0~15세의 자녀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과, 고등학생의 경우 국민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과의 대화가 보다 적다는 또 다른 연구결과(김문조 외, 1993)를 종합해 볼

때, 가정내에서 우리의 부모들이 우선 자녀와의 대화 기회의 확대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그러면 우리들의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와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우리가 가정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교육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자녀와의 대화 기회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 중 하나는 바로 이 문제다.

부모와 주로 대화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2가지씩 답하라고 한 설문조사(문화방송, 1991)에 의하면, '공부/성적' 53.2%, '장래/진로' 38.6%, '학교생활' 31.8%, '친구' 20.8%, '음식이나 건강' 15.3%, '행동이나 습관' 14.2%, '가족' 7.2%, '취미나 운동' 4.9%, '이성문제' 2.7%로 나타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그나마 적은 부모 자녀간의 대화가 주로 공부나 진학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에서는 특히 중학생의 경우 63.2%가 부모와 '공부/성적'에 대한 대화를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의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입시 문제로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건전한 청소년교육의 방향을 모색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의 주된 소재가 공부 문제이고 이로부터 연유하는 고민의 상당 부분이 우리의 경우 청소년의 정신장애와 청소년 비행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이것은 소위 중3병, 고3병 등으로 불리우는 것처럼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생기는 '입시 스트레스 증후군' *school entrance test stress syndrome*으로 표면화된다. 예컨대 81년 1월~87년 9월 중앙대 부속 용산병원과 필동병원의 신경정신과 입원환자 가운데 청소년의 비율은 13.7%로서 미국 국립 주립 정신병원에서의 청소년 입원 비율인 5.9%에 비해 그 비율 자체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입시병 청소년의 비율이 85~86년 42.1%에서 87년 78.3%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었다(이길홍, 1992). 다시말해서 입시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정신분열증을 비롯하여 조울증이나 우울증, 각종의 불안장애, 약물남용 등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성적 비관으로 인한 자살이 전체 자살 사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공부나 성적에 대한 고민은 청소년들에게 공부에 대한 압력으로 구체화되어 다양한 청소년 비행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김준호 등의 조사연구(김준호 외, 1990 ; 김준호, 1990)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나 그렇지 못한 학생을 가릴것 없이 모두 공부에 대한 압력이나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고, 그러한 압력이 크면 클수록 집안에서의 소외감이나 비행친구들과의 접촉으로 인해 비행을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계층적으로 볼 때 기존 이론의 예측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중상층에 속하는 집안의 자녀들이 하층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비행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부에 대한 압력을 해소할 합당한 놀이 공간이 거의 부재한 실정에서 공부에서 소외된 학생들은 쉽게 퇴폐향락 업소를 찾게되고 이 경우 유복한 가정의 청소년들이 가난한 가정의 청소년들보다는 이와 관련된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김준호 등의 연구(1990)는, 다양한 비행 유형들을 종합해 볼 때 중상층 가정의 청소년 비행율이 하층 청소년들의 그것보다 전반적으로 높기도 하지만 비행 유형별로 볼 경우 이들 중상층 청소년들은 경제적 빈곤과 연관된 재산비행(절도, 남의 물건

파괴 등)이나 가출과 같은 비행보다는 돈이 드는 지위비행(음란비디오 관람, 당구장 출입, 흡연, 음주, 디스코장 출입 등)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위비행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공부 압력에서 비롯된 비행친구와의 접촉이며 이는 고등학교 재학생이나 재수생 모두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경제적 수입이 많은 가정의 청소년들이 지위비행을 더 많이 저지른다는 노성호의 연구(1986)와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중상층 가정의 청소년 비행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공연하게 사회문제화 되지 않는 이유는, 이들의 비행이 발각되지 전에 “숨어 있는” 상태로 꽤 오래 지속되는 이른바 “숨은 비행”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통제를 받을 경우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해 대개 타협을 보게 되는 이른바 ‘통제의 선택성’이 높게 작용한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심영희, 1988). 결국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들은 대다수의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공부 압력이 심지어 중상층 가정의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비행의 실질적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부압력외에 청소년 비행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청소년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양육방식과 부모 자녀간의 정서적 친밀도를 꼽을 수 없다. 김준호 등의 연구(1990)에 의하면,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부모의 양육방식이 권위적일 때 가장 비행을 많이 하는 동시에 빨리 하고 민주적일 때 가장 적게 하고 늦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친밀도가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비행을 적게 하며, 특히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정서적 친밀도보다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정서적 친밀도 정도가 청소년

비행에 좀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이 연구는 자녀가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느낄수록 비행을 적게 하며 늦게 한다는 점도 밝혀 주고 있다. 이같은 발견들은, 부모와 청소년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 대해 얼마만큼의 사랑을 베푸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기의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종래의 지적(심치선, 1983)을 뒷받침 해주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 단절로 인한 애정의 결핍도 현대 가정의 중요한 문제거리중 하나(한국청소년연구원, 1992)이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동시에 부모와 자식간의 대화 방식이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방식의 성격이 곧 부모의 양육방식과 부모-자녀간의 정서적 친밀도의 내용을 규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논의에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자원을 우리는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Habermas, 1984 ; 1987). 장춘익은 의사소통적 행위의 토대인 담화(또는 대화)의 핵심적 성격을 “담화 참여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으며, 각자는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논지를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도달된 합의는 행위에 구속력을 가지며 행위자에게 합리적 동기를 부여한다는 데 있다”(장춘익, 1994 : 291)고 간결하게 정리하면서, 특히 이같은 담화 방식에 의해 도달된 합의가 담화 참여자들의 행위에 ‘합리적인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때 합리적이라는 말은 “행위자가 자신이 하는 행위에 자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에 의거해 동의하였다는 의미”이며, 담화의 바로 이런 측면이 “사회화 과정에서 어린이가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개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담화적 교육이 불가결함을 보여준다”(장춘익, 1994 : 290-291)는 것이다. 필자가 볼 때 청소년의 가정교육과 관련하여 이 점의 착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식간에 이러한 방식의 대화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갈 경우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사고와 행위를 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뚜렷한 책임의식도 내면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내에서 이같은 대화 방식의 조기 정착은, ‘일반적으로 자기폐쇄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청소년기’(심치선, 1983)에 접어들어서도 부모와 이들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가 개방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간의 원만한 대화 분위기는 하루 아침에 조성될 수 없는 것인만큼 어린 시절부터 거듭 시행하여 체득해 나갈 때 비로소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급속한 사회변화의 와중에서 오늘날 많이 악화되기는 했지만 우리의 경우 가부장적인 가족 전통에 내재해 있는 가정내에서의 부모의 유리한 입지가 적어도 이 맥락에서는 어린 청소년 자녀를 일찌기 이같은 대화의 틀로 유도하는 데 유리한 여건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화 방식의 확보는 물론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시에 앞서 살펴본 바 있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정서적 친밀도를 고양시키고 청소년의 공부 압력과 그에 따른 정신장애나 비행의 잠재력을 합리적으로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화과정에서 부모는 청소년 자녀와 학업외에 ‘보다 다양한 대화’의 소재를 놓고 서로의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고 확인해 갈 수 있을 것이며 가정을 통한 ‘전인교

육'의 가능성도 적지 않게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¹⁾

Ⅲ. 담화적 교육의 전제 :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담화적 교육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 필자는 여기서 가정내에서의 담화적 교육의 확립이라는 과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점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부모 자신들의 냉철한 자기 성찰과 자녀를 이해하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청소년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교육적 태도의 일대 전환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가정내에서의 담화적 교육의 정립이 불가능함을 뜻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들에게는 과연 어떤 측면들에서 어떤 자세의 전환이 요구되는가.

첫째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신들과 자녀들간에 '세대 차이' *Generation Gap*가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인정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리라고 본다. 상이한 성장 배경을 지닌 부모세대와 청소년 자녀세대 간에는 정치의식, 경제의식, 사회의식 등의 제반 의식 영역과 행동 영역에 있어 의식격차가 있게 마련이고 이에 따른 세대간의 갈등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한국사회학회, 1990). 예컨대 우리의 경우 기성세대로서의 부모세대는 일반적으로 전통적 윤리와 가치관 속에서 이념적 갈등과 경제적 빈곤의 시대를 살아온데 반해, 오늘의 청소년 세대는 평등주의적, 개인주의적 가치관 속에서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물질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정영운, 1992; 임희섭, 1986 : 105-125). 이처럼 부모세대와는 상이한 가치체계와 생활 환경 가운데 성장해 온 것이 오늘의 청소년들이고 보면, 부모와 자식간에는 '청소년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서부터 괴리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담화적 교육의 주체로서의 부모들은 우선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부모들은 청소년 세대가 살아 가고 있는 변화된 생활 환경과 그 특성에 민감해야 하며, 이를 현실적으로 인지하고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청소년 자녀들의 생활세계를 바라보고 대화하는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이다. 이 점이 간과될 경우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격차는 메꾸어질 수 없을 뿐아니라 가정내에 담화적 교육방식도 뿌리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부모들은 자식과의 성장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세대차이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청소년기에 특유한 인성발달상의 특징들을 이해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 정영운의 연구(1992)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상의 과도기, 질풍노도의 시기, 자의식의 실현시기, 감정의 양면성이 표출되는 시기, 모험의 시기, 정체형성의 위기시기, 반항의 시기, 성적 성숙의 시기, 교우·집단의 형성시기, 심리적·경제적 독립의 노력이 이루어지는 시기 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부모들로서는 자신들의 자녀들에게서도 언제든 드러날 수 있는 이같은 청소년기의 특징들과 이로부터 파생 가능한 청소년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을 주제로 한 TV 강연이나 토론 프로그램의 시청 또는 청소년 관련 독

1) 현대 가족문제의 근원이 가족기능의 축소 내지 약화에 있다고 보면서 '가정생활 교육'의 필요성에 주목하는 연구에서도 가족생활주기상 자녀교육기에서는 민주적 가정의 확립, 가족주권, 자녀와의 의사소통 등이 강조되고 있는 데(유영주, 1991), 이것 또한 기본적으로는 위에서 말한 '담화적 교육'의 확립 논지와 궤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와의 접촉 기회 확대 등이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들의 실제 능력을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자녀들의 학업능력(성적)을 부모들이 엄연한 하나의 사실로 수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어려운 세대를 살아온 우리의 부모들로서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공부의 한을 자녀를 통해 풀고자 하는 ‘과잉기대형’ 또는 ‘과잉보상형’ 부모의 모습을 띠기 쉽다. 이 경우 부모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열악한 삶의 조건에 견주어 비교적 쾌적한 생활 조건 속에서도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청소년 자녀들을 불만스럽게 바라보게 되고 자신의 성장배경에서 형성된 잣대로 자신의 자녀를 훈도하려 들기 마련이다.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인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도에 있어 특히 성적에 대한 관심이 드높은 우리의 가정환경속에서(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이같은 부모의 태도가 담화적 교육의 걸림돌이 되리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더 나아가 우리의 부모들은 그러한 유형의 부모들로부터 정신장애 청소년들이 적지 않게 배출된다는 사실(이길홍, 1992)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 자녀들에 대한 담화적 교육이 실질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의식(대학관)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필자는 여기서 자녀의 대학진학에 관한 부모들의 일반적 의식과,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부모의 직업의식과 관련하여 이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자녀들의 대학진학, 특히 일류대학에의 진학에 대한 부모들의 열망은 한편으로는 맹목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객관적인 준립근거를 지

닌 것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학력, 특히 고등교육의 이수는 우리사회에서 사회이동의 중요한 하나의 통로(홍두승, 1980)였을 뿐 아니라 소득의 주요 결정요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홍두승, 구해근, 1993). 하지만 그동안 진행되어온 대학문화의 확대와 그에 따른 대학졸업자의 구직난 심화 및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의 완화 추세 등(김혜영, 1993; 강순원, 1990; 배무기, 1991; 홍두승, 구해근, 1993)은 종래의 상황 판단에 대한 재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학부모들이 우선 이러한 객관적 현실 상황의 변화를 정확히 직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녀들의 대학진학에 대한 의미를 진지하게 재검토해 보아야 하는 인식 전환의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이 측면에서의 의식 전환은 당연히 청소년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부터 여러 측면에서의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부모쪽에서 보면, 부모들 자신이 청소년 자녀의 입시로 인한 중압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보다 자유로운 가정적 분위기 속에서 자녀의 건전한 인성교육과 진로지도가 하게 될 개연성이 그만큼 커질 것이다. 그런가 하면 청소년 자녀의 입장에서는, 공부에 대해 훨씬 유연한 태도를 지닌 부모를 보면서 공부로 인한 압박감이 적어질 것이고 종래와 같은 공부압력으로부터의 정신장애나 비행의 소지도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청소년 자녀에 대해 건전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가정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다.

담화적 교육을 위한 부모측에서의 의식 개혁의 노력은 직업의식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부모들의 직업의식은 앞서 살펴본 이들의 대학관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있기 때

문이다. 필자는 이 문제를 부모들의 일반적 직업 의식과 직업윤리의식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의 부모들은 여러 직업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자. 직접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 의식 조사는 아니지만 20세 이상의 한국 성인 직업종사자들의 직업적 지위 인식에 대한 최근의 한 조사연구(홍두승, 1992)는 여기서 유용한 하나의 간접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듯하다. 조사대상자들의 직업 범주를 볼 때 이들 중 상당수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양한 직업범주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는 자신의 계층적 지위에 관계 없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였다. 다시 말해서 기성 직업인들간에는 여러 직업들의 사회적 서열에 대해 상당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기성세대가 어느 층을 막론하고 뚜렷한 직업귀천의식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교교육이 전인교육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성세대의 직업의식이 이같은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직업의식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양상을 시사해 준다.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직업 개념의 인식에 대한 한 연구(이옥, 1993)는 이 점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즉 이 연구는 “청소년의 교육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업의 사회적 위세나 경제적 소득 등과 관련된 직업의 외재적 가치를 중요시”(이옥, 1993 : 42)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결국 부모세대의 직업의식의 재정립이 없이는 청소년 자녀들에 대한 건전한 직업 또는 진로 지도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앞으로도 부모들이 지금과 같은 서열위주의 직업의식을 탈피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사회적 위세를 지닌 일부 직종(소위 ‘인기 직종’)에로의 진입을 위한 노력을 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의 학력경쟁을 다시금 부추기는 현상을 낳게 될 것이고, 청소년들에게는 공부압력으로 와 닿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럴 경우 부모와의 대화적 방식에 의한 청소년 직업(진로)교육의 전망도 실종되고 마는 것이다. 부모들의 직업의식의 개혁이 시급한 이유의 하나가 바로 이 점에 있다. 부모들의 이러한 직업의식 개혁이 조속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직업적 지위에 따른 보상체계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분배 영역에서의 제도적 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보다 근본적인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와 함께 필자는 부모들의 직업의식 개혁의 대상을 부모들의 직업윤리의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 즉 부모들이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무관하게 분명한 직업윤리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스스로 직업윤리의식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직업에 자긍심을 갖고 생활해 가는 부모의 모습은, 그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자녀들에게 부모의 직업과 그 밖의 직업들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게끔 작용할 것이고 더 나아가 부모의 인생을 이해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직업인들이 서로 다른 계급에 속하면서도 자신들의 직업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의 직업위세 평가를 하는 현실(홍두승, 1992) 속에서는 직업에서의 부모들의 이른바 ‘프로정신’의 발현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불투명한 부모의 직업윤리의식이 청소년 자녀들에게 투영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부모들의 직업윤리의식의 확립이 개혁적 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다. 자신들의 직업에 대해

분명한 정체의를 지닌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들과 다양한 직업세계와 자신의 직업에 관해 자신감을 갖고 대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올바른 직업윤리의식을 갖추어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가정생활 속에서 일차적으로 청소년 자녀들에 대한 직업(진로)교육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이 또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폭넓은 직업교육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양한 직업들의 특성과 전망에 관한 부모들의 지식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러한 논의들은 결국 가정내에서 담화적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차이, 청소년기의 특징, 자녀들의 능력, 부모 자신들의 대학관과 직업의식 등의 문제들에 있어서 부모쪽에서의 인식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IV. 한국사회의 현실과 청소년교육을 위한 제도적 개혁 방향

담화적 방식에 의한 청소년교육도 우리사회의 '현실'속에서 추구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다. 청소년의 담화적 교육을 위한 부모의 인식전환을 토대로 우리의 주변 현실을 살펴보고 이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혁의 방향을 모색해야함은 이 때문이다.

이 때 가정과 연계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된 영역은 학교교육일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근대교육은 가정과 교회를 벗어나 학교교육 중심체제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제 학교교육은 평등한 교육기회의 부여를 통한 '사회평등의 실현기구'로서의 의미를 갖기에 이르렀다(정환규,

1991). 특히 구조기능론은 업적주의 사회, 전문가 사회, 민주주의 사회를 현대사회의 세 가지 중심원리라고 보면서 이를 기초로 교육기회의 확대와 균등을 최선의 평등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Hurn, 1978 : 32-70 ; 정환규, 1991 : 28에서 재인용). 그러면 우리의 교육 현실은 과연 이러한 이상에 걸맞게 전개되고 있는가.

최근 한 인류학자의 연구는 이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함을 설득력있게 보여주고 있다(조혜정, 1991). 이 연구에 의하면, 우리사회에서 학력경쟁이 심화되어감에 따라 제도교육 자체가 가정과 유착되어 전개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근대 교육체제의 성립시 표방했던 '학교교육을 통한 평등사회의 실현'은 신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입시경쟁이 가열되면서 기회균등적 학교교육에 학교공부의적 요소가 개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과외공부, 촌지, 수험생의 영양관리와 감정관리, 가정이 제공할 수 있는 공부 분위기 등과 같은 요소들이 학생들의 학력향상의 또 다른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되었고 이 맥락에서 부모의 재정적 뒷받침이 결정적 의미를 갖게된 것이다. 이처럼 학력경쟁이 청소년 가정의 경제적 배경과 유착되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교육현장은 '공정한 경쟁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학력향상에 가정의 재정적 지원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가정의 경제적 궁핍은 부모와 자녀간의 건전한 가족관계마저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바른 청소년교육의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학교교육제도, 특히 입시제도의 개혁 필요성이 일차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다. 물론 이 시점에서 문제제기와 해결 노력의 주체는 누구보다도 학부모 자신들이어야 한다. 필자가 볼 때 현시점에서 학부

모들이 나서서 전개해야 할 몇 가지 구체적인 노력으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선 학부모들은 학교교육과 가정의 유착으로 인해 공정한 학력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공론화하면서 교육재정의 확충과 그에 따른 교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이른바 ‘촌지문화’를 척결해 나가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관리하에 있는 수험능력시험이나 각대학 관할의 본고사 내용이 고등학교의 정규교과과정의 숙지여부를 검증하는 수준의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입시내용의 개혁을 정부와 대학사회에 요구하는 여론을 부단히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대다수의 학부모들이 각 가정의 상이한 경제적 여건속에서 나름대로 떠안고 있는 ‘사교육비’(특히 과외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학력경쟁과 가정의 유착관계를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는 길이 되리라 본다. 결국 이것은 공정한 학력경쟁체제의 확립을 현실성 있게 끌어올리는 방법인 동시에 적어도 이와 관련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도 적지 않게 줄여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학교교육에 있어서 가정과 학교간의 유착이 야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 측면은, 가정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기회가 절대적 수준에서 청소년들에게 차등적으로 주어진다든 점일 것이다. 청소년들이 자기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교육기회에 차별을 받지 않아 함에도 불구하고 계층에 따른 취학기회의 불평등은 우리사회의 엄연한 현실의 한 단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임희섭, 1983 : 82-168). 교육제도 개혁의 또 하나의 필요성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은 정부를 상대로 무엇보다도 먼저 ‘의무교육연한의 확대’를 요구해야 하리라 본다. 물론 이것을

관철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학부모를 포함한 우리가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교육에 대한 우리의 인식전환이다. 즉 교육은 교육수혜자쪽에서의 ‘투자’라는 측면도 있지만, 적어도 일정 수준까지의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국민에 대해 양질의 교육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 국가를 상대로 국민복지의 차원에서 ‘교육재정의 확충을 통한 의무교육의 확대’라는 제도적 개혁을 조속히 단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한국교육연구소, 1993 : 128-152).

바람직한 청소년 교육의 방향을 탐색해 감에 있어서 필자는 가정과 학교간의 유착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한 학력경쟁이나 절대적 교육기회의 차등 문제를 개혁하는 것과 더불어 교육과정에서의 개혁을 내세우는 주장(한국교육연구소, 1993)에도 주목해야 하리라 본다. 이 점은 청소년의 교육에 있어서 앞서의 것들보다 더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은 경쟁과 취득의 대상인 교육의 ‘내용’ 문제이기 때문이다. 즉 교육과정은 청소년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하게 될 구체적인 내용물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선정과 심의 과정에 교사와 함께 학부모 집단이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예컨대 ‘교육과정 심의 학부모 위원회’ 제도 및 이와 연계된 ‘교육과정 공청회’제도 등)의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하리라 본다. 청소년들에게 전수하게 될 지식 내용들이 교육과정에서 실제로 ‘누구에 의해 어떤 조건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성격의 것’이 채택되느냐 하는 것은 청소년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교육과정에서 채택되는 지식 내용은 분명히 ‘사회적 성격’을 지닌 것(정우현, 1990)일 수 밖

에 따라서 청소년 자녀의 교육에 지대한 관심과 책임이 있는 부모들이 교육과정의 중요한 하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부모들은, 그동안 우리의 청소년 교육(그 중에서도 정치사회화 교육)이 막강한 권위주의적 국가의 독점하에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제약한 채 특정한 교과목들을 매개로 기존체제를 정당화하고 분단체제를 고착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이규환, 1986; 진덕규, 1992 참조). 물론 필자도 부모들이 설령 그와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모든 교육과정에 실무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부모들이 초등 및 중등 교육과정의 교과목들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것이 필요한 까닭은, 초·중등교과 중 적어도 지배층의 이해가 깃들 소지가 큰 청소년의 정치관, 경제관, 윤리성이나 도덕성, 가치관, 인생관, 사회관 등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일정한 식견을 갖춘 학부모들로 관련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가정에서 청소년 자녀와 접촉하여 얻은 담화적 교육의 성과물과 부모들의 중지를 모은 바람직한 학습방향의 개요를 교과에 나름대로 반영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이들의 생활자체이기도 하다는 점(차경수, 1983)을 고려할 때 청소년 교육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의 지속적인 연계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밖에 없고, 이런 점에서 이것은 청소년 교육의 가닥을 폭넓게 잡아 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가정속의 부모와 학교를 이어주는 건전한 하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필자는 이러한 노력이 대학교육 과정과도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고 판단된다. 직업교육적 성향이 지배적인 오늘의 대학교육에서 대학 청소년의 인성교육이 끼어들 여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같은 대학교육의 현실은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심신이 찌든 채 대학에 들어온 청소년들의 정신세계에 대체로 이렇다 할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마지막 교육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 대학사회의 실정이 이렇다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 청소년 교육의 전망은 그리 밝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학에 재학중인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대학사회를 상대로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교육과정의 제도적 보완을 요구해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여론을 환기시켜야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고려대의 「바른 교육, 큰사람 만들기 선언」이나 동국대의 「신학풍운동선언」은 대학사회가 주체적으로 인성교육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된다(동아일보, 1994년 11월 29일). 물론 그 성과를 가늠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적어도 청소년 교육문제의 핵심이 인간교육에 있음을 자각한 하나의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 교육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이같은 일부 대학에서의 국지적 노력이 아니라 대학사회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및 제도화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필요의 충족은 역시 대학 학부모들의 집단적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볼 때 청소년의 인성교육 강화와 함께 대학사회에서 강조해 봄직한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는, '부모세대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된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속에서 가족 성원들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 기반을 갖추기 위해 동분서주해 온 부모세대들의 삶의 궤적을 현대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

화와 연관지어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교과과목의 상설화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교과목의 학습은, 가정과 유착된 불공정한 학력경쟁과정 속에서 재정적으로 자신을 충분히 뒷받침해 주지 못했던 부모의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그러한 교과목의 이수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자신의 부모에 대해 가졌던 종래의 원망과 불만을 떨쳐버리고 부모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강좌는 대학에서만 아니라 사회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에서 상설화 될 때 보다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날까지도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사회적 격변기에서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삶을 살았던 부모들 밑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전전한 청소년 교육의 방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학교교육 영역에서의 개혁 노력과 더불어 사회제도적 차원에서의 개혁 노력이 또한 병행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그 주요한 한 측면을 필자는 기업체 입사제도의 개혁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체들이 채용 공고시 흔히 내거는 학과제한(물론 업무의 성격에 따른 부분적 제한은 불가피 하겠지만)이나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면접 전형과정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온 성차별이나 대학간 차별(예컨대 명문 대비명문 대학의 구별, 중앙 소재 대학 대 지방 대학의 구별)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조치가 단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추천이나 서류심사에 의한 채용관행이나 필기에 선행되는 추천이나 서류심사제도 등(강원대학교 취업보도부, 1994참조)은 대학이나 학과, 성에 관계 없이 ‘균등한 응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정성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이 이념의 실현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이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대학 입학과 함께 얻었던 ‘학력’으로서의 ‘획득적 지위’ *achieved status*를 우리사회의 기업들이 입사채용과정을 매개로 ‘귀속적 지위’ *ascribed status*화 해 주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같은 상황은 대학 생활을 통해 대학 청소년들이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의 상당부분을 인정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대학교육의 중요성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직업적 지위의 획득 보장이라는 ‘공정한 사회’ 또는 ‘정의로운 사회’의 이념과도 상치됨은 물론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기업입사제도의 개혁 방향은 입사에 관심을 갖는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한 시험 기회를 제공함’을 대전제로 응시자의 인성과 기업의 업무 수행시 요구되는 기초소양을 측정하는 쪽으로 모아져야 하리라고 본다. 기업체 입사제도의 기본틀이 이런 방향으로 짜여질 때, 비로소 대학교육도 가정 및 중·고등학교에서의 청소년 교육의 연장선 상에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대학교육은 인성교육을 기저로 하면서도 학생 각자의 전공과 관련하여 사회진출시 필요한 기초소양과목들이 결합된 형태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이의 실현도 필자는 기업체의 자발적 의지에 전적으로 맡겨둘 수 만은 없다고 본다. 이 경우에도 해결노력의 주체는, 이 문제와 관련한 1차적 이해관계 당사자인 대학생 학부모와 대학 청소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은 대학 사회내에서는 물론 사회일반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여론을 조성해내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체 입사제도의 전면적 개혁과

정확이 여기서의 문제해결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V. 맺 음 말

청소년에 대한 교육문제가 우리 모두의 지대한 관심사 중 하나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청소년은 오늘을 살아 가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더욱 각별할 수 밖에 없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 기능의 상당부분이 가정 이외의 기관으로 이관된 오늘의 우리 상황에서도 청소년교육의 주체는 역시 부모여야 한다는 필자의 기본입장은, 이같은 당위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 문제는 과연 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교육해야 하느냐가 남아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부모의 '담화적 교육'이 청소년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담화적 방식에 의한 청소년교육의 정착이야말로 '가정 민주화'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의 초석이기 때문이다. 담화적 교육을 통해 마련된 민주적인 가정 분위기는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친밀도를 고양시키고 청소년 자녀의 공부 압박을 덜어주며 따라서 이들의 정신장애와 비행 잠재력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 공해 주는 것이다.

물론 가정내에서의 담화적 교육의 정립을 위해서는 자녀들에 대한 부모쪽에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자신들과 자녀들간의 세

대차이, 청소년기의 특성, 자녀들의 능력, 부모의 대학관과 직업의식 등의 영역에 있어서 기존의 통념을 탈피하려는 부모들의 인식 전환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담화적 교육을 위한 가정내에서의 부모들의 이러한 노력만으로 청소년교육이 우리 사회 속에서 완전히 자리잡을 수는 없다. 청소년교육의 상당 부분이 청소년들의 주된 삶의 터전인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정의 부모들이 기속이 되는 청소년교육이 우리사회에 대한 정확한 현실 파악과 연계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정과 학교간의 유착에서 비롯되는 불공정한 학력경쟁이나 절대적 교육기회의 차등적 분배 현상, 교육과정의 국가독점, 학교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의 미비, 기업체 입사채용과정에서의 불완전성 등이 담화적 청소년교육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사회의 주된 현실적 걸림돌들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의 부모들은 청소년자녀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다. 다시말해서 이들 각 문제 영역에서도 청소년교육의 주체인 부모들이 주도적으로 구체적인 개혁방안들을 끊임 없이 모색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부단한 자기성찰을 토대로 현실사회의 제반 제도적 개혁을 요구하는 부모들의 노력이 결집되고 이어져 나갈 때 담화적 교육에 의한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 가능성과 그 폭도 그만큼 커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순원. 1990. 「한국교육의 정치경제학」, 한길사.
강원대학교 취업보도부. 1994. 「1994 취업진로 안내」, 강원대학교.

김문조.김원동.서용석.김혜영. 1993. 「청소년의 인성발달과 규범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연구보고서.

- 김준호. 1990.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공부에 대한 압력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창간호).
- 김준호·노성호·고경임·최원기. 1990.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공부압력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혜영. 1993. 「과잉교육화 문제」, 임희섭·박길성 공편, 오늘의 한국사회, 나남.
- 노성호. 1986. 「사회계층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비행척도구 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동아일보사. 1994. 동아일보, 11월 29일.
- 문화방송. 1991. '91 MBC 청소년백서.
- 배무기. 1991. 「노동력 수급구조의 변화와 개선 방안」, 노동문제연구소 편, 한국의 노동문제, 비봉출판사.
- 심영희. 1988. 「중류계층비행연구 : 생활사 분석을 중심으로」, 형사정책(3).
- 심치선. 1983. 「청소년과 가정」, 현대사회와 청소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이규환. 1986. 「한국의 교육문제 제3세계의 시각에서」, 제3세계와 한국의 사회학, 돌베개.
- 이길홍. 1992. 「정신의학 분야에서의 청소년 연구 동향과 과제」, 청소년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원.
- 이상주. 1983. 「기성세대와 청소년 세대차의 문제와 그 대책」, 현대사회와 청소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이 욱. 1993. 「한국 학생청소년의 직업개념인식과 직업가치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4권 제4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종원. 1994. 「청소년의식의 국제비교」, 한국청소년연구, 제5권 제4호, 한국청소년개발원
- 유영주. 1991.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생활교육에 관한 연구」, 최재석 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총간행위원회 편, 한국의 사회와 역사, 일지사.
- 유영주·김진숙. 1992. 「가정학 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 동향과 과제」, 청소년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원.
- 임희섭. 1983. 「사회적 평등과 발전」, 정음사.
1986. 「사회변동과 가치관」, 정음사.
- 장춘익. 1994. 「하버마스 : 비판적 사회이론의 정립과 정치적 실천의 회복을 위한 노력」, 사회비평, 11호, 나남.
- 정영운. 1992. 「심리학 분야에서의 청소년연구 동향과 과제」, 청소년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원.
- 정우현. 1990. 「교육사회학연구」 교육과학사.
- 정환규. 1991. 「학교교육과 불평등 문제」,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적 불평등, 한국 청소년연구원.
- 조혜정. 1991. 「청소년의 평등한 삶을 위한 과제 -가정과 학교간의 유착현상을 통해본 제도교육의 문제점과 그 대응책-」, 한국청소년연구, 제2권 제3호, 한국청소년연구원.
- 진덕규. 1992. 「한국의 청소년문제에 관한 정치적 인식」, 청소년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원.
- 차경수. 1983. 「청소년과 학교」, 현대사회와 청소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한국교육연구소. 1993. 「교육민주화와 교육개혁의 과제」, 한국민주주의의 현재적 과제제도, 개혁 및 사회운동, 창작과 비평사.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83. 한국인의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 한국, 일본, 태국, 미국, 프랑스, 영국 6개국의식구조비교조사.

- 한국사회학회. 1990.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나남.
- 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한국청소년의 실태와 문제.
- _____ 1992. 청소년문제론
- 홍두승. 1980. 「Two Channels of Social Mobility : Patterns of Social Mobility in Urban Korea」, 사회과학논문집 5집,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992. “분배적 정의와 형평의식”, 황일청 편,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형평, 나남.
- 홍두승·구해근. 1993. 「사회계층·계급론」, 다산출판사.
- Habermas,J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Thomas McCarthy (trans.), Boston : Beacon Press.
1987.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LifeWorld and System : A Critique of Functionalist Reason*, Thomas McCarthy(trans.), Boston : Beacon Press.
- Hurn,C 1978. *The Limits and Possibilities of Schooling*, Boston : Allyn and Bacon, Inc.